

[심층] >> 3면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과 학생의 학습권

[기획] >> 7면

온라인 시험, 한계와 나아가야 할 길

[사회문화] >> 8면

K-방역, 성소수자 혐오로 위기 맞나?

[인물] >> 12면

꿈과 희망의 주문을 거는 최현우 미술사를 만나다



이번 달 12일 융합인재대학의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수가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와 학생 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융합인재대학은 무엇인지△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됐는지△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센터에서 온라인 직무특강 진행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진로취업센터에서 이번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슬기로운 온라인생활 시즌1 라이브 직무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줌(zoom)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달 4일부터 글캠 진로취업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우리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착순 신청받았다. 또한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질문을 조사했다.

이번 특강엔 △광동제약 HR직무△아모레퍼시픽 디지털마케팅직무△디에스자산운용 IS직무△LG

CNS IT서비스직무의 현직자가 초청됐다. 이를 바탕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제약산업 경영지원 직무의 이해△화장품 산업 영업·마케팅 직무의 이해△증권산업 및 금융직무의 이해△IT산업·IT서비스 직무를 주제로 한 강의가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강문희(통번역·이탈리아어 17) 씨는 "현직자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해당 직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민규(경상·국금 16) 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직무이해"라며 "학교 측이 다른 직무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 특강을 열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특강에 참여한 학생은 9명의 졸업생을 포함해 총 193명이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변화된 우리학교의 두 가지 학점 관련 규정

이번 달, 우리학교 학점과 관련된 규정이 두 가지 변경됐다. 첫 번째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달 11일, 우리학교 성 평등센터는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시 종합정보시스템 성적 조회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성 평등센터는 △양성평등 기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번 학기부터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재학생·대학원생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총 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마쳐야 시간이 인정된다. 한편 우리학교 교직원 역시 폭력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종합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사용이 제한된다.

두 번째로 재수강 가능 학점이 상향됐다. 이번 달 12일,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 재수강 가능 학점 변경 소식을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18학점이었던 재수강 가능 학점이 21학점으로 확대됐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변경된 이번 규정은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의 교육자치국은 "재수강 가능 학점 상향 외에도 어학 강의 절대평가 시행 등 학사제도 관련 현안을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수강 제도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경희대학교는 기존에 재수강 허용 과목 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입생부터 학기당 2과목 이내로만 재수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재수강 가능 학점 수에 제한이 없고 과목별 1회에 한해 신청하도록 운영 중이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개교 66주년 기념 및 스마트도서관 준공식 열려

이번 달 15일, 스마트도서관 5층에 위치한 휠리야쿠쉬 네트워크에서 개교 66주년 기념식 및 스마트 도서관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우려해 1m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소규모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서관 준공식은 관선주 행정지원 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행사는 △개식·국민의례△내빈소개△스마트도서관 경과보고△기념사△축사△의대상(HUFS AWARDS)시상△감사패 수여 순으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개교 66주년 기념식은 나민규 교무처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개식△학교연혁△교내 포상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휠리야쿠쉬 네트워크는 스마트도서관 5·6층에 설치된 계단식 컨퍼런스 홀이다. 이는 우리학교 스마트도서관의 건립을 위해 총 20억의 기금을 기부한 윤윤수 휠라·아쿠슈네트 회장(이하 윤윤수 회장)의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스마트도서관 준공식 축사에서 윤윤수 회장은 “인문

학을 기반으로 한 외대의 큰 발전을 기대한다”며 “스마트 도서관에서 재학생이 자기 소양을 개발해 스타트업 사례가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안규

백 동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세계로 뻗어가는 외대가 글로벌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교 66주년 기념 및 스마트도서관 준공식을 진행하는 모습



▲우수 직원을 시상하는 모습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외대상(HUFS AWARDS)을 수상한 구자철 예코홀딩스 회장은 “훌륭하고 고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외대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달 11일, 스마트도서관은 대면 수업이 제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자료실 및 자유 열람실을 포함한 30%의 공간이 개방됐으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외부인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손 세정제 사용△간격 유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양 캠퍼스 총학생회,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해



▲전체교수회의장 앞 총출동 모습 (출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번 달 8일, 우리학교 오바마 홀에서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앞에선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가 주최한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총출동)이 진행됐다. 이는 당일 회의에 총장선출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는 지난해 실시됐던 총장선출제도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이고 또 다른 안건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의 교수 참여 여부 논의였다. 지난해 10월, 양캠 총학은 교직원과 함께 총장선출제도개선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교수협의회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현재 총장선거는 총장후보선출규정 제5장 제20조에 따라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실시된다. 즉 총장선출권이 법인이사회와 교수협의회에만 주어져 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총출동에선 비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철폐하고 총장선출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란 내용의 시위를 펼쳤다. 총출동은 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위 학생회를 주축으로 약 150여명의 학생이 모여 진행됐다. 한편 이번 해 신년사에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새로운 총장선출제도의 내용적 소망성과 합의 가능성이 우리학교 공동체를 지키며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체교수회의의 결과 성원이 충족되지 않아 안건이 의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지난해 8월 전체교수회의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이 계류됐다”며 동일한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학교 측의 주도로 ‘△교수△직원△학생 총 3주체가 참여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 설립’ 여부를 묻는 온라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투표는 회의가 열린 이번 달 8일부터 한 달 이내로 시행된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동대문구 3개 대학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 열려



▲동대문구 3개 대학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지난달 23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동대문구 소재 3개 대학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에 의해 대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 확보를 요구하고자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관련 대행이 참여했다. 행사는 △여는 발언△총학생회장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세 대학 총학은 대학당국과 국회 및 정부에 요구 내용을 전달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김회장)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온라인 개강은 많은 혼란을 빚었다”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재학생의 불만이 계속된 강의로 학교 측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로 인한 주거비 및 교통

비 지출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 돌아온 학생의 경우 급하게 방을 빼고 귀국하며 주거비 관련 피해를 입거나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학교 차원의 대책을 강구했다. 김민영(LD·LD18) 설캠 부총학생회장은 “실습·회화수업에 대한 해결을 학교 측에 요청했음에도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의 빠른 결정과 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선 총학생회가 수집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전달받았고 원격강의의 불편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윤병호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한 캠퍼스에만 1800여 개의 강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제보가 들어왔을 시에 학교 측에서 조사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서미 기자 seomi99@hufs.ac.kr

우리학교 일본학대학, 재학생 433명 전원에게 면학장학금 지급해



▲일본학대학장실

이번 달 8일, 우리학교 일본학대학(이하 일대) 측이 교수회의를 거쳐 일대 재학생에게 면학 및 특별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학장학금이 이번 달 31일 전까지 재학생 433명 전원에게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해 1학기를 등록한 모든 재학생이 면학장학금의 대상이다. 해당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다만 대상자는 이번 달 18일 오전 10시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일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및 학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장학금을 사용하길 권했다. 또

한 면학장학금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일대를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장학금의 경우 지급대상을 재학생 전원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재학생으로 제한했다. 특별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달 중순쯤 지급된다. 이를 받기 위해선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학부모 실직·폐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이번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상훈 일대 학장은 “일대 재학생이 장학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은수(일본·언어문화 19)씨는 “면학장학금부터 특별장학금까지 재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장학금의 목적에 맞게 지급됐다”며 일대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본 관련 단과대학이며 일본언어문화학과 융합일본지역학부가 속해 있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과, 증평군과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해

이번 달 12일,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가 충청북도 증평군과 ‘증평마을 아카이빙(Archiving)* 프로젝트(이하 증평 프로젝트)’ 추진 협약을 맺었다. 증평 프로젝트는 이번 해부터 2023년까지 증평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이다. 증평군은 우리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측은 △기록물 프로젝트 공동 참여△학술 연구 및 기록관 운영 성과 공유△학생 인턴·현장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증평 프로젝트는 증평의 현재를 기록해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위해 이번 해 하반기부터 역사를 기록할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증평군 청사 별관 1층에 라키비움(Larchiveum)을 신축 중이다. 라키비움은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증평군은 해당 공간을 오는 8월에 개관하고 수집한 기록물을 △교육△보존△전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페이스북 ‘증평기록관(@archivingJP)’ 계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빙(Archiving):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할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에

대면수업 전환에 대한 교무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이번 달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대

면강의 진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면강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된 가운데 △ 우리학교의 대면수업 허용△대면수업에 대한 우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대면수업 진행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학교의 대면수업 허용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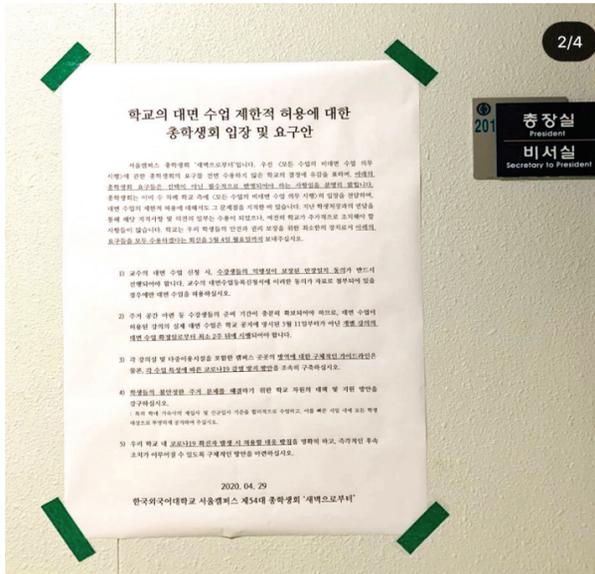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교무위원회는 대면강의 시행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29일, 우리학교 학종지는 우리학교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달 11일부터 제한적 대면강의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실기△실습△시험△회화 등 대면이 불가피한 수업의 경우 대면강의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수강생 30명 이하 강의에 한하며 교수와 재학생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성적 절대평가, 중간시험 자율시행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기말시험은 15주차인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또한 필요시 보충강의는 16주차인 다음 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학생이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유고결석제인 대면수업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교수는 과제물을 부여하거나 원격수업자료 제공을 통해 수업 결손을 보완해야 한다. 대면수업불참사유서를 제출한 김보미(상경·국통 19) 씨(이하 김 씨)는 “매주 과제를 제출하며 교수님과의 통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현재 △중급 일본어 회화△초급 독일어△한국어 교육 실습 등 회화·실습 과목과 △레크리에이션△승마△휘트니스 등 체육 과목을 포함한 41개 수업이 대면수업을 허가받았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기초 루마니아어 문법작문△붓다의 명상법(이론과 실제)△헝가리어학개론 등 총 63개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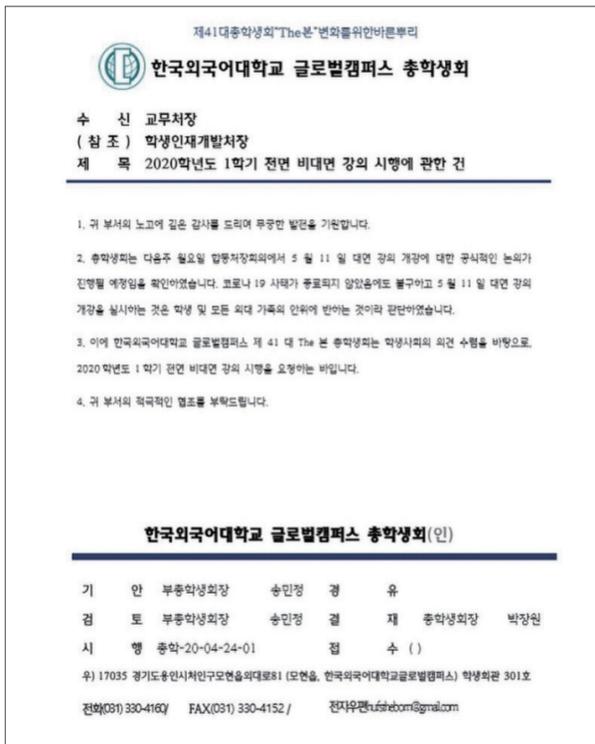
대면수업이 허용됨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일부 학교 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설캠에선 교수회관 식당과 인문관 식당이 운영중이다. 글캠 역시 후생관 학생식당과 흡스돔(HUFS Dorm) 식당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양캠 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열람실 일부 출입을 허용했다.

◆양캠 총학의 지속적인 의견전달

지난달 23일, 설캠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는 학교 측에 대면강의 재개 논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 날 글캠 총학생회 ‘더 본’ (이하 글캠 총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 시행 요청 공문’을 글캠 교무처 및 학생인재개발처장에게 발송했다. 박용구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에게 양캠 합동처장단 회의에 총학생회장단의 참여를 건의했다. 설캠 총학 또한 지난달 27일 진행된 교무위원회 및 양캠 합동처장단 회의에 학생대표 참석 허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일부 처장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단 이유로 서면상의 입장전달만 허용했다. 결국 학생대표는 참석하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설캠 총학은 회의 당일 총장 및 설캠 처장단에게 입장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며 재학생의 의견 관철을 요청했다. 또한 설캠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무위원회 위원인 각 단과대학장과 독립학부장에게도 입장문을 전했다. 글캠 총학 또한 회의 시작 전 처장단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글캠 총학은 입장문에서 “학생의 주거불안이 해결될 수 없고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응할 학교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대면수업을 반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학종지는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을 공지했다.



▲설캠 총장실 앞에 부착된 설캠 총학 입장문(출처:설캠 총학 인스타그램)



▲글캠 총학이 발송한 대면수업 관련 공문(출처:글캠 총학 인스타그램)

◆대면수업 허용에 대한 우려

대면수업이 허용된 직후 설캠 총학은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 및 요구안’을 학교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를 총장실 앞에 부착했다. 이를 통해 설캠 총학은 △수강생의 익명성이 보장된 만장일치 동의를 시에만 대면수업 허용△개별강의의 대면수업 확정일로부터 최소 2주 뒤 시행△캠퍼스 방역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감염 방지 방안 △구속△수강생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지원 방안 △강구△우리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침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달 4일까지 총학생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달 6일, 글캠 총학 역시 교무처장 및 학생인재개발처장에게 기말고사 대면 진행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9일까지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을 교무처에 요청했다. 이에 7일 교무처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2일 기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면 기말고사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 성적평가는 교원의 권한이기에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교·강사가 대면수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캠 총학은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 관련 학교 지침 위반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지침위반 항목은 △대면강의가 불필요함에도 대면강의 실시 통보△수강생과 합의절차 없이 대면수업 일방적 통보△실시간 강의 중 익명성 고려 없이 대면강의 찬반여부 조사△30명 초과 중대형 강의의 대면강의 실시 통보였다. 조사 결과 위반 사례는 설캠 115건, 글캠 43건으로 총 158건으로 집계됐다. 양캠 총학은 해당 조사 결과를 양캠 학종지에 전달했다. 이후 학종지에서 해당수업의 단과대학장과 학교장에게 이를 알리고 지침위반으로 신고된 대부분의 대면수업을 취소했다.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학교의 대처

이번 달 11일, 우리학교는 이태원 클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대면수업 관련 긴급안내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교수는 대면 수업 시작 혹은 실시 결정이 된 이후라도 학생안전과 학교보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대면수업을 중단 또는 취소 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의 전면 중단이 아닌 교수의 재량에만 의존했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병호 설캠 학종지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면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재원 글캠 학종지 대리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나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내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4.13(월) ~ 04.27(월)	2020.05.18(월) ~ 06.01(월)
고사장 발표	2020.05.06(수) 15:00	2020.06.10(수) 15:00
면접전형	2020.05.09(토) 10:00 예정	2020.06.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05.21(목) 15:00	2020.06.2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05.21(목) ~ 05.27(수)	2020.06.25(목) ~ 07.01(수)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영어교수학습지도 학과(ELT)
나.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학과(ELT CD)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예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무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및면접시험(영어Writing포함)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후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야간 평)
나.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야간 평)
다. 현직 교사 장학금(예 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 학위 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화웨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이고, 하와이)

8. 기타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http://tesolgs.hufs.ac.kr및모집요강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1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융합인재대학 신설,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이번 달 12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을 신설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융인대는 글캠의 특성화를 위한 단과대학으로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융합 교육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융인대를 계획하는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에서다. 융인대 신설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융합인재대학이란 무엇인가

다음 해부터 설립되는 융인대는 글캠 내 단과대학이다. 융인대는 기존 외국어교육 단과대학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무적 융합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 학과 단위 교육이 아닌 5개의 모듈*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 5개의 모듈은 △ICT&AI△국제전략△글로벌 통번역△스마트이노베이션△혁신경영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아랍어△영어△이탈리아어△중국어로 구성된 글로벌 통번역 모듈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나머지 4개의 모듈 중 2개를 선택해 이수하도록 한다. 이런 융합적 커리큘럼을 통해 △공연전시 기획 전문가△국제기구·NGO 전문가△영어·아랍어 의료 산업 전문가 또는 통번역사△영화 영상산업 통번역 전문가△의료 관광 통역 코디네이터△이슬람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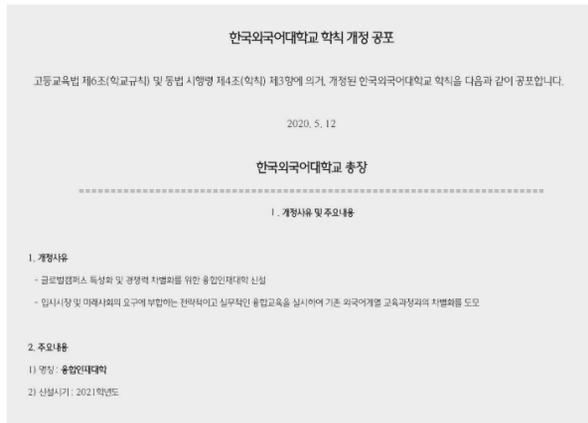
융인대는 기존 통번역대학의 △아랍어통번역학과△영어통번역학부△이탈리아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와 인문대학의 지식콘텐츠학부 일부 정원을 이동시켜 총 10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랍어통번역학과는 기존 정원이었다던 45명의 전원 이동으로 다음 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영어통번역학부는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영어통번역심화전공△TESOL.영어학전공△영미문학번역전공 총 4개의 세부 전공 중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과 영어통번역심화전공이 융인대로 이동한다. 이탈리아통번역학과와 중국어통번역학과에선 각각 10명, 5명이 융인대로 이동한다. 그리고 지식콘텐츠학부는 입학정원 16명 중 융인대로 이동하는 4명을 제외한 12명을 인문대학의 각 학과에 4명씩 배정하기로 했고 다음 해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번 달 6일, 정호정 통번역대학장은 글캠 영어통번역학부 세부전공 영어통번역학심화전공 개강총회(이하 통심 개총)에서 “글캠의 입시 결과 상승과 상경·이공계 지식 욕구 충족을 위해 융인대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글캠의 신입생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단과대를 신설하고자 했다”고 답해 융인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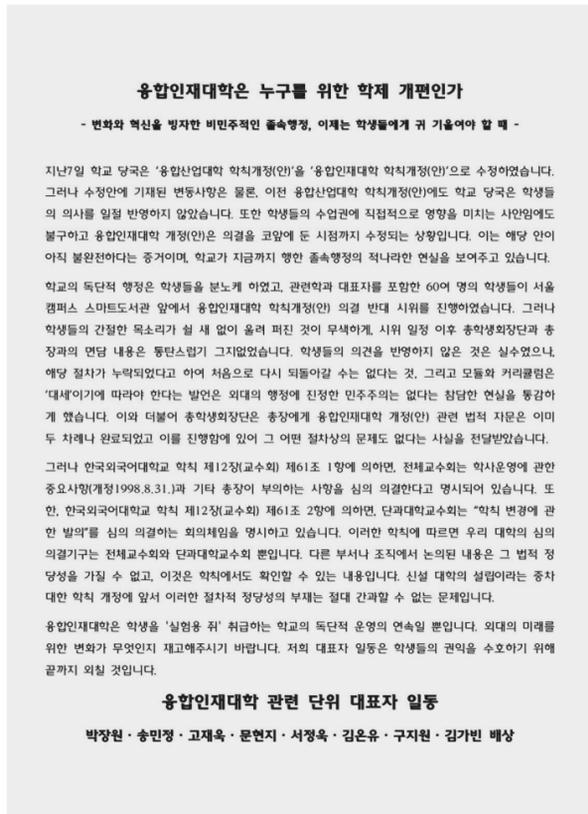
◆융인대 신설을 둘러싼 논의와 학교의 반응은 어떻게

융인대 신설에 대해 학생 대부분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랍어통번역학과 학생회△영어통번역학과 비상대책위원회△지식콘텐츠학부 학생회에서 시행한 융인대 신설 건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각각 △95%△95.7%△88.5%의 응답자가 융인대 신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글캠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이하 글캠 총학)은 융인대의 가안이 나온 시점에 △교원 미정과 부족△충분한 논의 없는 빠른 진행△해당 학과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근거로 들며 비판했다. 더불어 △관련 학과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단과대학 명칭과 정원 이동 인원 확정△학생대표자와의 논의와 그에 관한 보고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달 8일, 학교는 교무위원회와 전체교수협의회 회의에서 융인대 신설 논의 및 의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같은 날 융인대 관련 단위 대표자 일동을 포함한 60여 명은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앞에서 융인대 학칙개정 의결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김 총장은 글캠 총학생회장단과의 면담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실수지만 절차가 누락됐다 해서 재진행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융인대와 관련한 두 차례의 법적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글캠 총학 측은 융인대 신설 의결의 절차 자체를 지적했다. 융인대 신설 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의 심의 의결기구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 뿐이기에 다른 부서의 의견과 논의는 융인대 신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단 것이다.

일부 교수도 융인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영어통번역학부 융합산업대학 비참여교수 7인은 입장문을 통해 융인대 출범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강제 정원 조정 통보△거취 문제 해결 방안 미제시△융인대 출범 통보△입시 조정 및 학제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미제시△정원 분할 합의 강요△충분한 논의 시간 비허용을 들며 융인대 신설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 주장했다. 또한 융인대로 일부 정원이 이동하는 다른 단과대학에선 교수 정원을 강제 각출하지 않았으나 어문계열 학과에서만 이를 요구한 점도 지적했다. 즉 융인대 신설을 위한 학교의 행위는 교수의 교권과 학



▲융합인재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칙개정 공지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융합인재대학에 대한 융합인재대학 관련 단위 대표자 일동 대자보 전문 (출처: 글캠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생의 수업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 해에 융인대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달 12일, 학교 측은 학생과 일부 교수의 계속된 주장에도 융인대 신설을 확정했다. 융인대 신설이 결정되자 학생 측은 △교원 이동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해당 과들의 재학생 후속 조치 부족△커리큘럼 미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번 달 19일,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은수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담당자(이하 김 전략기획팀 담당자)는 해당 요구에 대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 이동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의 소속은 변경하지만 기존 교수의 담당 수업은 병행 조치한다. 만약 일부 학과에서 병행이 안 되는 수업이 생길 시 학교 측에서 교·강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과의 재학생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번 해까지 입학한 학생의 소속은 변경되지 않고 기존 소속이 유지될 것이라 답했다. 이어 아랍어통번역학과나 지식콘텐츠학부의 경우엔 융인대에서 그 과의 특성과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해당 과 기

존 재학생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덧붙였다. 커리큘럼 미비에 대해서도 “아직 융인대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 교수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교수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교수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융인대 신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존재했다. 지식콘텐츠학부 학생회가 실시한 융인대 신설 관련 의견 조사에서 융인대 신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7.7%는 △글캠 특성화를 통한 서울캠퍼스와의 경쟁력 차별화△외국어계열학과 경쟁력 약화의 선제적 대응△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이유로 들었다. 마승혜 영어통번역학전공 조교수는 통심 개총에서 “나 역시 새로운 변화가 두렵고 학생의 걱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며 “인구 감소나 디지털화로 문과대 경쟁력이 감소해 융인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과거 학과 통폐합 갈등, 융인대는 어디로

2009년에 신설됐던 우리학교 자유전공학부는 2013년도 LD학부 신설로 인해 5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같은 조치에 당시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강력히 반대했다. 재학생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처사다”라며 본관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신입생이 입학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더욱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결국 자유전공학부는 폐지됐으며 해당 학과 학생의 소속은 LD학부로 변경됐다. 학교 측에선 기존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했으며 졸업생에게도 폐지 이전의 ‘사회과학사’ 학위를 부여했다. 이처럼 이전에도 학부 폐지 과정에서 학생과 학교 간 불화가 발생한 바 있다. 그 이후 LD학부는 국내 유일의 외교관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학부로 자리 잡아 입시전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에 영어대학에서 △영문학과△영어통번역학과△영어학과 3개로 나누었던 학과가 영어대학 내 영어학부란 단일 전공으로 통폐합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전공 통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됐다. 영어대학 재학생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본관 앞에서 공부하는 일명 ‘공부 시위’를 진행하고 대자보를 붙이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재학생의 부정적 반응에 학교 측은 학생과 협의해 진행하겠다 뜻 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2013년에 영어대학 내 전공들은 영어학부로 통합됐다. 이후 2015년에 영어학부는 다시 폐지되고 △영어학과△영미문학문화학과△EICC학과 체제로 변화했다.

이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속해서 발생 해왔다. 융인대 신설 역시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크다. 이에 김 전략기획팀 담당자는 “융인대 신설이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선 논의가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학생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는 학칙개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땐 최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달 14일, △글캠 총학생회장△지식콘텐츠학부 학생회장과 학생회장△영어통번역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지식콘텐츠학부 학생회장은 융인대 후속 조치에 있어 학생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학생 측은 △교내 모든 장학금 유지 보장△소속 이동을 위한 전과 예외 규정 준비△커리큘럼 존속 보장△학생 대표자 9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며 학교 측은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학교와 학생 간 이견 조율을 통한 융인대의 앞으로의 향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모듈: 교과목 단위

학교 운영 참여에 학생 자치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대학 내 민주화의 일환인 학생 자치권을 두고 학교 측과 총학생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홍콩사태 관련 대자보 철거 문제부터 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 운동까지 학생 참여 범위를 두고 양측의

견이 대립 중이다. 학생 자치권 허용 범위와 학교 측과 총학생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자.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생 자치권에 대한 규정은 우리학교 학칙 제10장 학생활동에 명시되어 있다. 이중 학칙 제10장 1절엔 학생 자치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범위가 적혀 있다. 또한 해당 학칙 세부 항목인 47조에선 학생 자치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단과 별 학생회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48조에선 학생회의 활동 허용 범위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학교 학칙 자체가 법이 아닌 학교 운영의 포괄적인 방침이란 점에서 학생 자치권 행사 및 보장 범위가 불명확하다.

우리학교 총학생회칙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칙은 1960년에 처음 만들어져 역대 총학을 거치며 수정과 보완을 거듭했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칙 중 제1장 8조는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학생 자치권 행사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총학은 학생과 연관된 학교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학칙에 대한 수정 발의 △학회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총학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회 △위원회 △학교기구에 학생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칙은 학생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해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같은 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은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신설에 대한 시위도 진행했다. 글캠 총학은 총장실에 게시한 대자보에서 융인대 신설은 재학생의 의사가 배제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캠 총학은 재학생의 의견을 모은 융인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칙에 따르면 학사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가 교수협의회에 국한되어 학생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수용되기 힘들다. 이에 글캠 총학은 학교 측 행정의 의사 결정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학교 측과 학생 간에 잡음이 발생한 융인대 설립 논란은 이번 달 12일 이사회가 기존의 계획안을 가결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글캠 총학이 여전히 침체된 학생의

므로 총학의 입장과는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역시 학교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재학생을 위함이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학교와 학생을 이분법적 사고로 나눠 무조건 갈등 관계로 보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성과도 존재했던 것이다. 김 과장은 절대 평가 도입, 원격 강의 기간 조정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세부 항목별로 학생 자치권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캠 총학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채 학교 운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으로 이를 개선해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캠 총학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학생 참여의 총장 선출이 이뤄져야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대학 내 민주화 이행의 첫걸음이자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열린 총장선출제도 개선 관련 기자회견 (사진 출처: 뉴스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학 내 학생 자치권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는 주요 사립 대학 중 최초로 2017년에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이뤄냈다. 이대 총학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학교 측의 열린 의견 수렴이 일궈낸 성과였다. 이대를 기점으로 대학 내 민주화 운동은 단숨에 대학가 전체에 퍼졌다. 2018년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해 현재 22개의 소속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이대에 이어 성신여자대학교가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현재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학생 참여 총장 선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 8일, 설캠 오바마 홀에서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총장선출제도와 관련된 안건을 다룬 이번 회의는 성원부족으로 해당 안건이 의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 주도하에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 설립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투표엔 △교수 △학생 △직원 3주체가 참여한다. 이런 변화는 학생 참여 총장선출제에 대한 학교 측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 개선 안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방법 △양 캠퍼스 간 행정 처리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학교 측과 학생의 균형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학교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학교 행정 운영에 대한 관심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범위를 두고 일어난 갈등

학교 측과 총학의 주요 갈등 원인은 학교 행정 운영에 대한 학생 자치권 행사 및 적용 범위다. 현재 양측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학교 총장 선출권 문제다. 기존 방침은 교수협의회 주도로 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그중 한 명을 택해 선출하는 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침이 학내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교수의 의견만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체제라며 비판한다. 즉 학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관례란 것이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총장 직선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총학은 지난해 10월에 우리학교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기존의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총장 후보 선출권리 행사 범위를 교수뿐만 아니라 교내 노조와 학생으로 확대하란 것이었다. 이어 이번 달 8일엔 양캠 총학이 전체교수회의의 시작 전 총장선출에 대한 학생 참여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설캠 총학은 "비민주적 총장선출제도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겠다"고 밝히며 학생 자치권 증진의 의지를 다졌다.

- 제8조(학교 운영 활동)
-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학칙에 대한 수정 발의
 5. 본교의 발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 ③ 본회는 본회에 참여하는 학교 기구 혹은 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 우리학교 총학생회칙

권익이 있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학생 자치권 행사를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지속해 왔다. 여기에 이번 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와 지난해 홍콩 사태 관련 대자보 강제 철거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학생 자치권을 바라보는 양측의 다른 시각이다. 김범석 설캠 학생지원팀 과장(이하 김 과장)은 지난해 홍콩 사태 관련 대자보 강제 철거와 관련해선 "학교는 교내 안전 관리와 학생의 수업 보장이 우선이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4.21.(화) ~ 5.4.(월)	2020.5.25.(월) ~ 6.5.(금)
고사장 발표	5.6.(수) 15:00	6.10.(수) 15:00
면접전형	5.9.(토) 10:00 예정	6.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0.(수) 14:00	6.24.(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5.25.(월) ~ 5.29.(금)	6.29.(월) ~ 7.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은 학사과정총점평균이 3.0(4.5만점기준) 이상인자
*평균기준: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한 성적증명서 1부(원본)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학업 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등서 수어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Mustaqillik deklaratsiyasi (1-mart, 1919-yil)



번역
Kholiddinova Khilola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우즈베크어
전임강사

감수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기미독립선언서 - 우즈베크어 번역

Biz bu yerda Koreyaning Mustaqilligi va koreys xalqining ozodligini e'lon qilamiz. Bu orqali butun dunyo xalqlariga inson huquqlari tamoyiliga ko'ra tenglikni, kelajak avlodga xalqimizning o'z taqdirini hal qilish huquqini abadiy qo'lga kiritganligini bildiramiz. Biz buni besh ming yillik davlatchilik tarixining guvohligida va 20 million aholining nomidan abadiy va o'zgaras xalqning erkin rivojlanishini ta'minlash va insoniylikka asoslangan yangi jahon hamjamiyatini qayta qurish harakatiga qo'shilishi maqsadida e'lon qilamiz. Bu Xudoning irodasi, davr talabi va butun insoniyatning tengligini huquqiy ta'minlovchi adolat mezoniga muvofiq bo'lgan bo'lsa, dunyodagi hech narsa buni to'xtata olmaydi va taqiqlay olmaydi.

Eski davrdan qolgan bosqinchilik, zo'raonlik davrida qurbon bo'lib, bir necha ming yillikdan beri ilk bor boshqa xalqning zulmidan jabr ko'rganimizga ham o'n yildan oshdi. Bu davr mobaynida bergan qurbonlarimiz qancha? Mafkuraviy o'sishga tosiq bo'lgan g'ovlar qancha? Millatning qadr-qimmatini va obro'sini to'kkan omillar qancha? Yangicha dunyoqarash va ijodkorlik bilan jahon madaniyatiga hissa qo'shish imkoniyatlarini yo'qotganimiz qancha?!

O'tgan adolatsizliklarni butun jahonga bildirib, hozirgi azoblardan qutulib, kelajakdagi xavflarni bartaraf etish uchun ezilib oriqlagan va yo'qolish arafasida turgan millatning insoniyatini hamda davlatning shanini tiklash uchun, har bir shaxsni adolat ila kamol topirish uchun, farzandlarimizga sharmandali hayotni meros qilib qoldirmaslik uchun, kelajak avlodga baxtli va to'kin hayotni taqdim etish uchun, eng buyuk va dolzarb vazifamiz, millatning ozodligini qo'lga kiritishdir. Bugun yigirma million xalq qalbida tig' bor. Zamon ruhi va insoniyat birlashib, adolat degan asarlar va insonparvarlik degan qurol bilan bizni qo'llamoqda. Biz shunday olg'a qadam tashlaymizki, hech qanday kuch bizni to'sib qola olmaydi va hech qanday g'oya bizni chekintira olmaydi.

Biz Yaponiyaga 1876-yilgi Do'stlik to'g'risidagi bitimga xiyonat qilgani uchun jazo bermoqchi emasmiz. Ularning olimlari ma'ruza zalida, siyosatchilari amalda bizning avloddan avlodga o'tib kelgan jamiyatimizni mustamlaka mulki hisoblab, madaniyatni xalqimizni qolqoq deb ko'rib, faqat zabt etish zavqini qidiradilar. Bizning qadimiy j'umoiy ildizimizni va yetuk xalqimizni behurmat qilgani uchun Yaponiyaga tanbeh bermoqchi

ham emasmiz. O'zimizning kamchiliklarimizni tan olib, o'zimizni ruhlantirish bilan ovora bo'lib boshqalarni ayblashga imkonimiz ham yo'q. Biz hozirgi kunga jiddiy tayyorlanish bilan band bo'lib, o'tgan ishlarimiz kamchiliklarini izlashga imkonimiz yo'q. Bizning bugungi vazifamiz faqat o'zimizni uyg'otishdir. Bu aslo boshqalarni ayblashdan topiladigan narsa emas. Yurak amri bilan o'zimizning yangi taqdirimizni izlab yo'lga chiqdik xolos, aslo vaqtichalik hissiyot ila kek saqlab begonalarni badarg'a qilish niyatida emas. Bizning maqsadimiz eskicha qarashlar va zo'raonlikka asoslangan Yapon siyosatchilarining xayrixohligida yuzaga kelgan notabiiy va mantiqsiz umidsiz holatni bartaraf etib, tabiiy va to'g'ri yo'lga qaytishdir. Avvaldan milliy jihatdan ajralib turuvchi ikki davlatni birlashtirishning natijasi o'laroq faqat yuqori bosim va notenglik, yolg'on bilan to'qilgan statistik raqamlar ostida qadriyatlarini bir-biridan farq qiluvchi ikki millat o'rtasiga abadiy murosasiz nafrat o'rasini qaziyotgan bugungi kunning haqiqatini ko'ring. Ildam va yorqin jasorat bilan uzoq yillik xatoni tuzatib, to'g'ri tushunish va hamdardlik asosida do'stona yangi munosabatlarni o'rnatish - o'zaro g'inalarni unutib, baxtli hayotni olib keluvchi qisqa yo'l emasmiz?! Bundan tashqari, nafrat va g'azabga to'lgan yigirma million xalqni kuch bilan kishanlash Uzoq Sharqda abadiy tinchlikni saqlash yo'li emas, balki bu bilan Uzoq Sharqning osoyishtaligini xavf ostiga qo'yib, 400 million Xitoy xalqida Yaponiyaga nisbatan qo'rquv va hasad hisini ortirmoqda. Natijada, Butun Uzoq Sharq birga jarlik yoqasiga kelib qolishi aniq bo'lib bormoqda. Bu deklaratsiya orqali biz Koreys xalqi sifatida Koreyaning Mustaqilligini qo'lga kiritamiz va o'z navbatida, Yapon xalqi noto'g'ri yo'ldan qaytib Uzoq Sharqda yetakchi sifatida o'z burchini bajaradi va Xitoy xalqining xavotir va qo'rquvdan ozod bo'ladi. Yana uzoq Sharqda tinchlik o'rnatilib jahon tinchligi va insoniyatning baxtining muhim bosqichiga o'tiladi.

Bu qanday qilib hayajonli bo'lmasin! Yangi dunyo ko'z oldimizda turibdi. Zo'raonlik davri o'tib ezgulik davri keldi. O'tgan davrdan beri sayqallanib kelgan va shakllangan millat ruhiyatini ana endi yangi tamaddun nurini olamga tarqatishni boshlaydi. Yangi bahor butun dunyoga qaytib, borliqning qayta jonlanishini shoshiltirmoqda. Qattiq sovuq odamlarning nafasini bo'g'ib qimirlashga qo'ymagan davr o'tib, yorqin bahor shamoli va iliq quyosh nuri qon tominimizda josh urmoqda. Butun jahonga qaytib kelgan iqbolga hamohang dunyoning yangi o'zgarigan oqimida biz hech ikkilanmaymiz va chekinmaymiz.

Biz muqaddas erkinlik huquqimizni himoya qilajakmiz va jo'shqin hayot zavqini to'liq his etajakmiz. Bizning boy imkoniyatlarimizdan foydalanib, bahor shukuhiga to'lgan yer yuzida beg'ubor va yorqin millat madaniyatini yaratajakmiz. Biz bundan ilhomlanib

uyg'onajakmiz. Vijdon biz bilan, haqiqat biz bilan olg'a intilajak. Yetti yoshdan yetmish yoshgacha, barcha, qorong'i va bo'g'iq eski uyasidan turib, borliq bilan birga shod-xurram qayta jonlanajakdir. Ajdodlarimizning ruhi bizga madad berib, butun jahon quvvati bizni himoya qilayotgan ekan, boshlash-muvafaqqiyatdir. Biz faqat yorug' kelajak sari shaxdam qadam tashlashimiz kerak xolos.

Qasamyod 3-bob

1. Bugun bizning asosiy vazifamiz adolat, insonparvarlik, mavjudlik va sharaf uchun bo'lgan millatning talabini ado etishdir. Faqat ozodlik ruhi uchun intilamiz. Aslo boshqa hissiyotlarga berilib, chegaradan chiqilmaz.
2. Har bir inson to'eng so'nggi nafasgacha xalqning adolatlari fikrini dangal bayon etajak.
3. Har bir harakatimizda tartib bo'lib, doimo haq va adolatga muvofiq bo'lajak.

Koreyada ilk davlat tashkil topganligining 4252-yili, mart oyining birinchi kuni.

Koreys millati vakillari:

- Son Byong Hi
- Kim Byong Jo
- Na In Hyob
- Li Myong Ryong
- Pak Jun Seung
- Oh Se Chang
- Han Yong Un
- Gil Son Ju
- Kim Chang Jun
- Yang Sun Bek
- Li Seung Hun
- Pak Hi Do
- Oh Hya Yong
- Hong Byong Gi
- Li Pil Ju
- Gvon Dong Jin
- Yang Han Mug
- Li Jong Hun
- Pak Dong Van
- Jong Chun Su
- Hong Gi Jo
- Bek Yong Song
- Gvon Byong Dok
- Yu Yo De
- Li Jong Il
- Shin Hong Shik
- Chve Song Mo
- Kim Van Gyu
- Na Yong Hvan
- Li Gap Song
- Lim Ye Hvan
- Shin Sok Gu
- Chve Rin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속 그곳, 미국 로스앤젤레스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라라랜드'는 제목에 걸맞게 로스앤젤레스(LA)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라라랜드는 배우 지망생 미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영화의 흥행에 따라 촬영지도 많은 사랑을 받아 LA 곳곳이 여행 명소가 됐다. 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던 △앤젤스 플라이트(Angels Flight) △헤르모사 비치(Hermosa beach) △그리피스(Griffith) 천문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리피스 천문대의 사무엘 오스친 천체투영관 (출처: Google)

영화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데이트를 즐기던 앤젤스 플라이트는 LA 다운타운 언덕에 있는 전자 철로다. 1901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철로로 유명했다. 앤젤스 플라이트는 두 개의 전차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시나이(Sinai), 올리벳(Olivet)이라 부른다. 이 전차들은 그랜드 센트럴 마켓과 워터 코트 쇼핑몰을 잇는다. 잦은 사고로 운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운행되고 있다. 앤젤스 플라이트는 휴무 없이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10시 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편도 1달러, 왕복 2달러지만 메트로 탭 카드가 있을 경우엔 50센트에 이용할 수 있다.

헤르모사비치는 영화 속 세바스찬이 'City of Star'을 부르며 모자를 들고 춤을 췄던 곳이다. 헤르모사비치는 LA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이며 노을이 유명하다. 현지인에게는 낯익은 명소이기도 하다. 바다로 가는 길에 줄지어 있는 다양한 펍(Pub) 중 라이트 하우스 카페(The Light House Cafe)에선 영화처럼 실제로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세바스찬과 미아가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다 우주를 떠다니는 춤을 췄던 그리피스 천문대는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이곳은 매일 운영되며 건물 내부 모든 구역에 입장 가능하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그리피스 공원 할리우드 산 끝부터 LA 다운타운까지의 전망이 시야에 들어온다. 따라서 낮보다 밤에 방문해 도시의 야경을 경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별 파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세바스찬과 미아가 춤을 췄던 영화 속 공간은 '사무엘 오스친(Samuel Oschin) 천체투영관'이다. 이곳에선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라라랜드를 좋아한다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을 들으며 촬영지 곳곳을 둘러보길 바란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수집 안내



1980's

글로벌캠퍼스 짓는 중!

1990's



2020's

글로벌캠퍼스가 올해로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명수당 잔디밭에 누워 노래했던 청춘의 고민들, 모험학사열람실에서 밤을 새워 그렸던 그때의 미래들, 망각의 숲을 거닐며 나누었던 너와 나의 이야기들, 우리들의 '왕산의 추억'을 들려주세요.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관에서는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을 맞아 글로벌캠퍼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 전화문의 : 02-2173-3981
- 홈페이지 : <http://archives.hufs.ac.kr>
- 이메일 : hufsarchives9@gmail.com

※ 기증자분들께는 역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기록해 주신 기록물은 선별하여 글로벌캠퍼스 40주년 설립 기념 전시 및 기록콘텐츠 구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험, 한계와 나아가야 할 길

지난달 3일, 우리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원격강의 무기한 연장과 학사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공식적인 중간고사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 여부를 교수의 재량에 맡겼다. 대부분의 교수는 △온라

인 시험△중간고사 과제 대체△퀴즈 등의 형식으로 중간고사를 실시했다. 전례 없는 전면 비대면 강의가 실시된 가운데 치러진 온라인 시험 논란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자.

◆중간고사 시행 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학교는 원격수업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학교 측은 별도의 중간고사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고사 시행 여부 및 방식을 담당 교수에게 일임했다. 관련 내용은 수강생에게 사전 고지된 바 있다.

상당수 수업의 중간고사는 △시험 대체 과제△실시간 시험△퀴즈 등으로 나뉘었다. 시험 대체 과제는 △학습 범위와 관련된 리포트 작성△수업 내용 중 일부 주제 발표△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졌다. 실시간 시험은 교수가 올린 문제를 푼 뒤 이클래스(e-class) 시험란에 정해진 시간 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회화 수업은 온라인 미팅 및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인 웹엑스(Webex)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부 강의의 경우 중간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과제△기말고사△출석 등의 평가 비율을 높였다.



▲이클래스 시험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중간고사

특수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중간고사로 인해 일부 수강생은 온라인 시험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네르바교양대학 S수업이 그중 하나다. 해당 강의 중간고사는 웹엑스 상에서 교수가 2분 간격으로 한 문제씩 공개하는 식이었다. 답변은 마지막 질문이 공개된 직후 1분 내에 이클래스 과제란에 제출해야 했다. 해당 강의 수강생 A 씨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겪은 혼란스러움을 호소했다. 고지한 시간에 시험이 시작되지 않았고 웹엑스 상에서 시험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일부 학생이 시험 도중 교수님께 시험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하자 교수님이 “일단 넘어가자”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수강생 B 씨는 중간고사 답안 제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시험은 컴퓨터 문서 파일로 작성하거나 자필로 답안을 쓴 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서 파일로 답을 입력한 학생들은 1분 이내에 제출해야 했지만 자필로 쓴 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에 B 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편법을 쓴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 종료 후 다수의 학생이 항의 하자 담당 교수는 “이번 시험은 공부했다 것에 의미를 뒤야 할 것 같다”며 무효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이에 대해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채 통보하셨던 점이 가장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달 20일, 해당 강의 교수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지사항을 이클래스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담당 교수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재시험이나 대체 과제 정도다. 해당 강의 교수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일단락 지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온라인 시험

온라인 시험의 취약점이 악용된 사례도 발생했다. 수강생 사이에서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방(이하 단톡방)을 개설해 답안을 공유해

□알림

HUFSMOBILE

문제가 안 보여서 못 적어 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시험은 공부했다는 거에 의미를 뒤야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가 남았으니 그때 다시보죠.

▲미네르바교양대학 S 수업 공지사항

과목공지 (조회)

제목 : 중간고사 결과 처리 및 이후 강의 진행 안내

게시일 : 4일 전 오후 3:15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 목요일 치러진 중간고사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1. 미응시자 처리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반복 공지한 바와 같이 예외없이 'Fail' 처리됩니다. 매 학기 동일규정 적용을 받아온 이전 학생들과의 형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2. 중간/기말고사 서술형 추가

이번 중간고사 응시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직한 방식으로 답안을 공유했다는 제보가 교양대학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본 강의 시험방식이 오픈북/오픈노트 테스트가 원칙이나, 답안 공유는 학생들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응방안 논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간고사를 보완하는 한편 기말고사방식을 변경합니다.

- 시행일: 기말고사 응시 시에 함께 진행

- 문항수 및 배점:

서술형 중간고사 1문항 (중간고사 범위내)

서술형 기말고사 1문항 (기말고사 범위내)

- 성적반영: 각 시험에 30% 반영(기존 단답/객관식 문항은 70% 반영)

- 평가방법: 문제에서 제시한 개념어들을 연계하여 답안 서술. 답안공유 추적을 위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 평가하며, 표절 확인시 해당 학생들을 공동 결시 처리하여 과목전체 'Fail' 처리. 또한 해당 학생들은 학생징계위원회에 자동회부됨

기말고사 시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협조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3.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전공학점 미인정

이미 안내된 대로 이번학기부터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는 본 강의가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수강신청 시 이미 학생들에게 공지된 사항이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하여 성공적이고 유익한 수강 되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될 서술형 문제를 제외한 기존중간고사 결과는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교양대학 K 수업 공지사항

왔던 것이다. 미네르바교양대학 K 수업이 그중 하나다. 해당 수업은 'K-MOOC' 이란 온라인 플랫폼이 기반인 온라인 강의로 1,000여 명이 상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 수강생 중 다수는 △매 강좌의 퀴즈 정답 △중간고사 답안△기말고사 답안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단톡방을 개설하고 이에 참여했다. 수강생 C 씨는 “편법을 쓰지 않은 학생에게 공정하지 못한 시험 환경이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피해를 본 수강생이 분명 존재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담당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이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 제시했다. 이미 치러진 중간고사에 서술형 시험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동시에 성적반영 비율도 수정됐다. 이미 치른 객관식 및 단답형 중간고사 시험은 70% 반영하고 새롭게 실시할 서술형 시험은 30%의 반영비율을 갖도록 했다. 담당 교수는 “답안 공유에 대한 추적을 위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며 “표절 확인 시 해당 학생을 공동 결시 및 과목 전체 'Fail' 처리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할 것”이라 전했다. 학교 측의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해 C 씨는 “현실과 타협을 본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답안을 공유하기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추가한 것에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며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언제까지나 대안이며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K 수업의 단톡방은 암암리에 수강생 사이에서 각종 답안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는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시험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남은 기말고사는 어떻게 치를까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던 중간고사와 달리 기말고사는 기존에 공지한 대로 실시된다. 학교 측에서 설정한 공식적인 기말고사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다. 이에 일각에선 기말고사에 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김혜인(통번역·영어 19) 씨는 “기말고사 편 많은 학생이 동시에 이클래스에 접속해 서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글로벌컴퍼스 학사종합지원시스템 측은 “IT개발팀과 협력해 온라인 시험 실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서울컴퍼스 총학생회장은 “시험과 관련해 예상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교·강사가 사전에 파악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학생 모두가 양심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말고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방역, 성소수자 혐오로 위기 맞나?

이번 달 7일, 이태원의 클럽 세 곳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 당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이 클럽들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점이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해당 언론의 노조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아웃팅(Outing)'으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방역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소수자 혐오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와 필요한 대응을 알아봤다.

◆ 코로나19 방역의 걸림돌이 된 성소수자 혐오

우리나라엔 고질적으로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달 15일, SOGI법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8.08%에 그쳤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유럽 49개국 중 46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10.20%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우리나라의 낮은 성소수자 인권 지수의 원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제한(반(反)성소수자 단체의 혐오 선동△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관한 차별적 시선△정부와 지자체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포괄적 차별금지법·혼인평등제도의 부재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보다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낮게 평가된 국가는 △아르메니아(6.49%)△터키(5.16%)△아제르바이잔(3.33%) 등이 있다. 반면 상위국가로는 몰타(90.35%)·벨기에(73.08%) 등이 올랐다.

이태원 사태 로 인해 왜곡된 성소수자 인식은 노골적인 혐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성소수자 혐오는 코로나19 방역 전반을 방해하고 있다. 성소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부 대중의 무분별한 비난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꺼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K-방역'이라 부르며 극찬했던 외신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성소수자는 신상 공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사태를 계기로 발생할 차별과 혐오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성소수자 혐오 앞에 한국의 방역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AP 통신'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그들의 자발적 검사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AP 통신은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가 직장 혹은 가정 내의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던 점을 강조했다.

◆ 언론의 혐오성 보도 논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소수자 혐오의 시작엔 언론의 비윤리적 보도가 있다. 해당 사태를 단독 보도한 보수 개신교 계열의 한 언론사는 '게이 클럽', '찜방' 등의 용어를 제목에 배치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이나 방역 대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번 달 12일, 해당 언론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문을 통해 자사 보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노조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며 "굳이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자성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언론의 보도 때문에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으며 회사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도 혐오성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단어를 제목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가 말하는 게이클럽 위생실태',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태원 비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제목은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는 듯한 어조를 담고 있던 지적을 받았다. 동시에 이런 보도 행태는 아웃팅 논란을 몰고 오기도 했다.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방역의 특성상 확진자의 신상은 특정되기 쉽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의 성격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던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7일부터 11일까지 △동성애△게이클럽△게이 등의 키워드를 쓴 기사는 1076건에 달한다. 민언련은 "게이클럽 이 아니라 '클럽'이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운집했기 때문에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정확히 주지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싶다면 소수자 혐오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A 씨는 성소수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아웃팅의 위험을 지적했다. A 씨는 "성소수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여기지만 사회에 만연한 혐오 정서는 그들이 당당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 대중의 혐오

언론으로부터 출발한 혐오는 대중에게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한 게시글은 성소수자와 신천지 신도를 한데 묶어 힐난했으며 이외에도 성소수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글이 많았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사고방식을 우려했다. 이어 "근거가 없던 것이 혐오의 특징이다"며 "혐오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기회 삼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전파자 집단을 배제하겠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왜 그간의 감염자 집단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사회와 정부의 대처

이번 달 1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를 포함한 4개 인권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합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

본부(이하 성소수자 본부)를 출범시켰다. 성소수자 본부는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성소수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동시에 차별적인 보도를 내놓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보이콧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본부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하고 방역 당국과 소통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1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한 성소수자 혐오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명문에서 최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소수자 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방역 와중에도 상처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달 14일부터, 방역 당국은 의심환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검사를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익명검사 도입과 함께 확진 환자의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방문한 시설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며 "노출에 대한 걱정에 검사를 꺼리던 국민도 검사에 임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과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위험과 성소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모두 잠재워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이태원 사태 관련 성소수자 혐오 게시물

*LGBTI: 레즈비언(Lesbian) · 게이(Gay) · 양성애자(Bisexual) · 트랜스젠더(Transgender) · 간성(Intersex)의 앞글자를 딴 표현으로 성소수자를 의미

이준성 기자 100leesj@hufs.ac.kr

이문일커피철
la marzocco
handmade in Florence

**한국외대 x la marzocco
BASIC COFFEE CLASS**

이문일커피철에서 라마르조코와 함께 베이직 커피 클래스(취미반) 모집

라마르조코 코리아 본사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미반과 더불어 다양한 커피 클래스가 앞으로도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본 수업은 한국외대 교수님과 강사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강사 권오영
(현) 라마르조코 코리아 교육팀장
WCKC KCRC JUDGE (로스팅 국가대표 선발전 심사위원 활동)
유럽 스페셜티 커피 아카데미 트레이너 활동
국내 약 200여개 기업 사내카페 컨설팅

커리큘럼
1주차(6/3 19시) - 커피이론
2주차(6/10 19시) - 브루잉 커피 추출 실습(핸드드립)
3주차(6/17 19시) -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
4주차(6/24 19시) - 밀크스티밍 및 라떼 제조 실습

참가비 - 무료
재료비 - 5만원
장소 - 라마르조코 코리아 논현동 본사
모집인원 - 선착순 5명
신청 - <http://naver.me/GmawMhYN>

문의는 02-2173-3347(현소영 담당)

망 중립성을 둘러싼 망 운영자와 이용자의 갈등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화·드라마를 제공하는 OTT* 기업이 호황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이번 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한 가운데 인

터넷망 운영자는 넷플릭스를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로 여기게 됐다. 따라서 인터넷망 운영자는 늘어난 트래픽을 관리하고 증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해당 주장이 정당하지 않단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망 중립성' 개념을 최영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얘기해봤다.

최영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Q1.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망 중립성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어떻게 되며 개념이 무엇인가요?

처음 인터넷을 구축할 때 이른바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에 기초해 망을 만들었습니다. 단대단 원칙은 망의 끝과 끝에 있는 이용자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기반해 이용자는 망 운영자의 간섭 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기술적으로 견고한 망 구축을 돕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단대단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된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 이용자가 어떠한 장애나 차별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망 운영자가 망 이용자에게 통신망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망 운영자는 △KTT△SK브로드밴드(이하 SK)△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이고 망 이용자는 일반인을 포함한 △구글△페이스북△네이버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Q2. 최근 우리나라에선 망 중립성과 관련해 넷플릭스 코리아와 인터넷망 운영자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OTT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란 상황으로 넷플릭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망 운영자인 SK는 '이번 해 3월 기준 자사의 인터넷망에서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이 지난해 12월 말 대비 약 2.3배 늘었다'는 수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인터넷망 운영 사업자는 넷플릭스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늘어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설하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해, 넷플릭스는 SK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중립성을 근거로 SK의 비용 지불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망 사용자가 인터넷망 운영자에게 이미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망 운영자 간 '인터넷 통신망 사용 비용'의 갈등입니다.

Q3.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문제는 이른바 CP***와 ISP****간의 갈등으로

압축됩니다. 이는 망을 사용하는 측과 망을 구축해 사업을 하는 측간의 갈등입니다. CP는 망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반면 ISP는 이익을 얻고자 망 사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곤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CP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고 ISP는 망 중립성을 반대합니다.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순 없지만 양 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요. 사실 무료로 망을 사용하든 구글이나 네이버가 언론의 자유 혹은 이용자의 네트워크 접근권 등을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가식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다만 망 중립성이 없다면 ISP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유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망 이용자는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망 중립성을 옹호하되 이를 상업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쉽게 도출되기 힘들며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넷플릭스 로고 디자인

Q4. 해외에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갈등이 있나요?

해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황을 따라간다고 봐야 해요. 대체로 공화당은 망 중립성의 폐지를 원하고 민주당은 망 중립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상황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지에 따라 그 방향성도 달라져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망 중립성 갈등에 있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미

국의 망 중립성 갈등 초기 사례는 2004년 통신 사업자인 매디슨 리버(Madison River-Communication)와 인터넷 전화회사인 보니지 사(社) 간의 갈등입니다. 매디슨 리버가 보니지사의 인터넷 전화(VoIP) 트래픽을 차단했고 이런 차단 사실이 적발돼 약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2017년 공화당이 장악할 시기엔 네트워크 중립성 폐지 및 축소에 대한 FCC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FCC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통해 ISP의 업종 분류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허용된 ISP의 요금 차등은 부분적으로 망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망 사업자 혹은 콘텐츠 사업자가 FCC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Q5.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망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용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망 중립성 논의에선 이용자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의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망 중립성은 앞서 언급했듯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제약 없이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현 상황은 사업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크지 않죠. 그렇기에 망 중립성이 지켜지는지에 대해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OTT: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트래픽: 통신 시설에서의 통신의 흐름을 지칭하며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CP: 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그래픽과 음성 동영상 등이 가미된 콘텐츠가 기본 단위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개인·기업에 인터넷 접속 사이트 및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4.10(금) ~ 04.27(월)	2020.05.15(금) ~ 06.01(월)
고사장 발표	2020.05.06(수) 15:00	2020.06.10(수) 15:00
면접전형	2020.05.09(토) 10:00 예정	2020.06.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05.22(금) 15:00	2020.06.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05.22(금) ~ 05.28(목)	2020.06.26(금) ~ 07.03(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문화엔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특전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장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변화의 물결

국·부장 고정칼럼

17세기에 이르러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서양의 문화는 물밀 듯 밀려왔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는 서양인은 조선인에게 호기심보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그들을 '오랑캐'라고 칭하며 개항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의 압박은 계속됐고 그렇게 조선은 결국 통로를 열고 개혁을 시행했다.

누구에게나 '변화'를 겪는 것은 어렵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중단 것은 지금의 안정을 어지럽히고 일시적으로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단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화는 때때로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며 갈등의 씨앗을 만든다.

이번 외대학보 1044호엔 교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과 그에 대한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았다. 4면에 실린 '융합인재대학 신설, 학교와 학생의 동상이몽'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특성화와 경쟁력 차별화를 신설했던 융합인재대학과 신설과정에서의 갈등을 조명했다. 5면에 실린 '학교 운영 참여에 학생 자치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는 학생 자치권을 두고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생긴 갈등을 다뤘다. 어느 쪽이 옳

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날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이는 회피할 수 없던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변화의 물결을 무시한 채 나라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는 후에 늦은 개항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빌미를 제공했던 비판을 받았다. 빠르게 개항을 단행한 일본과 달리 조선은 이보다 약 20여 년 후에 개항을 시행했고 이런 차이가 문명의 발전에 큰 격차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무조건 빠른 변화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이뤄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 볼 수 없다.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진정한 물결의 파동이 나중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듯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

조미경 부장 99migyoung@hufs.ac.kr



우리 시대의 질서와 도덕(道德)

고대 동아시아 철학의 황금기인 제자백가 시절은 춘추전국시기와 같은 시기로 위기의 시대이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던 사유의 시대였다. 그 가운데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에서는 도덕(道德)을, 도가에서는 자연(自然)을 강조한다. 도가에서는 도덕을 억지로 만들어낸 부자연스런 것으로 본다. 도가에서는 본성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라고 한다. 도가는 도덕을 만들어낸 것이고, 도덕에 자연스런 본성을 억지로 결합시키는 유가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노자(老子)나 장자(莊子, B.C.369?~B.C.286)의 글을 읽으면서, 노자와 장자 이야기에 도덕 이야기가 제법 나온다는 사실이다. 노자와 장자 이야기에 아이말로 도덕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인상마저 든다.

처음에는 '도(道)'와 '덕(德)'이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사용되었다. 현대 한자 '도(道)'자는 '쉬엄쉬엄 갈' 辵(辵)자에 '머리 수(首)자가 결합된 글자다. 이 도자의 초기 금문 형태는 세 글자가 결합되어 있다. 우선 '네 방향'으로 통하는 큰 길'을 뜻하는 행(行)자의 한 가운데에 위로는 수(首)자, 아래로는 지(止)자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수(首)는 '관찰, 사고, 선택 그리고 방향 등'을 나타낸다. '지(止)'는 '걸어나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상형자전』에 따르면, 이는 '교차로 입구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 길을 안내'하는 뜻이라고 한다. 이후에 추상적인 뜻이 더해져, '삶의 길'이나 '우주 원리'와 같은 뜻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대 한자 '덕(德)'자는 행(行)의 원편 부분과 오른 편에 직(直)과 심(心)이 위아래로 합해진 글자다. 갑골문에서는 심(心)자가 보이지 않고 후기 금문에 와서야 심(心)자가 더해졌다. 초기 갑골문의 뜻은 '길의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을 뜻하다가, 후기 금문에서 마음 심(心)이 들어 가면서, '너그럽다'는 뜻으로 발전하면서 '높은 뜻을 지향하는 고도의 인격적 행위'라는 뜻 혹은 '자연원리에 순응하는 법칙'이란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자(荀子, B.C.298?~B.C.238?)가 '도덕(道德)'이란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사용하며 개념으로 정착시키기는 했지만, '도덕'으로 붙여 말하기 시작하는지는 오히려 도가의 장자다. 물론 유가와 도가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서로 조금씩 다른 뜻으로 쓴다. 그러나 그들을 굳이 비교해서 말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가의 도가 주로 이론원칙 또는 도덕준칙을 말하는 것이라면, 도가의 도는 우주 본원의 법칙 또는 무위(無爲)의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다. 유가나 도가 모두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을 표방하는데, 도덕은 내성외왕의 길을 가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도가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 형체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도덕이란 바로 이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일들과 관련된 개념이다.

'도덕'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던 시기는 한(漢)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다. 한제국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유가를 표방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법가(法家)적인 통치를 했던 나라다. 즉 '덕을 위주로 하되 형벌로 보완하는' 덕주형보(德主刑輔) 정책을 사용했다. 도덕은 바로 제국시대 황제들의 덕치로 '교화' 정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즉, 상하위계 질서를 세우는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세상은 도덕의 교육장이고, 정치 지도자는 바로 도덕 교육장인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으로 왕도(王道)를 실현한다는 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우주의 최고 준칙이었던 '도'가, 사람 사는 세상의 최고 준칙인 '도덕'으로 대체되었다. 통치자의 도덕적 행위가 통치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세상이 도덕적인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후한(後漢)의 왕충(王充, A.D.27~?)에 따르면, '이 세상의 도덕과 인의'가 곧 '하늘의 도'라는 것이다. 그에게 도덕정치는 천지에 순응하는 정치인 것이다. 이후 성리학의 도덕관념으로 계승된다.

유가에서 도덕을 강조하는 것과 도가에서 자연을 강조하는 것은 달라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노자가 무위(無爲)한 자연스런 질서를 이상으로 말한 것이라면, 공자도 도덕(道德)이란 유위(有爲)를 통해 자연스런 질서가 잡힌 무위(無爲)의 세상을 꿈꾼 것이 아닐까? 그들 시대의 시대적인 요구는 '질서'였다. 도가와 유가는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런 '무위'의 질서가 잡힌 세상 혹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도덕'의 질서가 잡히고 이 도덕질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등(平等), 공감(共感), 공생(共生)의 질서가 아닐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을 대처하는 나름의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사정과 형편에 따라 자기 자리에서 그저 차분히 대처할 뿐, 호들갑을 떨지는 말라고 한다. 물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차분히 대처할 수도 있고, 큰소리를 내며 대처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슬프거나 아픈 사람이 최소화한 그렇지만 바르고 떳떳하게 하는 처리가 되길 바란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8nahyuuuny@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 김나현:**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 김미정:** 학생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김연수:** 융인대 설립을 반대합니다.
- 이상우:** 교내 민주화가 평화롭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서미:** 융인대 설립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이준성:**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교가 됐음 좋겠습니다.
- 조미경:**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조하영:** 학생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하길 바랍니다.
- 조현수:** 우리학교의 모든 과도가 의미 있길 바랍니다.
- 최민선:** 학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기대합니다.
- 허지나:**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지금, 상생의 가치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십자말풀이

					2				
1									
1									
							4		
				5					
3									
3									

- 가로**
1. 양 캠퍼스 총학생회, '총장선출제도 0000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해 (2면 참조)
 2. 학교 운영 참여에 0000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5면 참조)
 3. K-방역, 0000 혐의로 위기 맞나? (8면 참조)
 4.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라라랜드'는 00에 걸맞게 로스앤젤레스(이하 LA)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6면 참조)
 5.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센터에서 000000특강 진행돼 (1면 참조)

- 세로**
1. 우리학교 일본학대학, 재학생 433명 전원에게 0000 지급해 (2면 참조)
 2. 2012년, 영어대학의 3개의 학과는 영어학부란 단일전공으로 000000했다 (4면 참조)
 3. 0000을 둘러싼 망 운영자와 이용자의 갈등 (9면 참조)
 4. 00000000 허용,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에 (3면 참조)
 5. 000시험의 허점과 대책 마련 필요 (7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나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꿈과 희망의 주문을 거는 최현우 마술사를 만나다.

최현우(경상·경제 99) 동문은 현재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정상급 마술사로 활약하고 있다. 국제마술협회 경연대회와 마술 컨벤션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서 우승을 휩쓸었고 2012년엔 '세계마술올림픽 FISM'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발탁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마술공연에 뮤지컬을 접목한 '매직컬'을 진행하고 '멘탈 마술' 공연을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 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연과 더불어 방송·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최현우 마술사를 만나보자.



Q1. 마술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마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 학교 경제학과(현 국제금융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마술을 좋아했는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전 이성을 만나고 싶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Kotkin)의 마술과 외국 여성분이 그의 마술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 마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술 자체의 매력에 빠져 결국 마술사란 직업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1997년도엔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집에서 쫓겨난 해이기도 하죠. 그 당시엔 마술사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자연스럽게 그 대학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생활하던 중 대학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들어 1999학년도 수능을 치고 우리학교 경제학과 입학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마술도 일종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이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2. 대체로 어떤 활동을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나요?

사실 대학생다운 대학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밖에서 자취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일을 하기 바빴어요. 또 마술에 관련된 해외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대학 생활을 보내는 바람에 신입생 환영회와 학과 MT 같은 학교 행사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동기 와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Q3. 마술엔 △스테이지(Stage)△클로즈업(Close-up)△멘탈(Mental)△일루전(Illusion) 등 여러 분야가 존재하고 현재 공연에서 다양한 분야의 마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마술 중 멘탈 마술에 가장 애착을 보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스테이지 마술은 말 그대로 무대에서 행해지는 모든 마술을 일컫습니다. 클로즈업 마술은 이와 반대로 소규모 인원의 관객을 대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카드나 동전 같은 생활 도구를 이용합니다. 멘탈 마술의 경우는 심리학과 뇌 과학 등을 접목해 관객의 심리를 파악해 공연을 진행하죠. 일루전은 사람이 절단되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등의 규모가 큰 마술을 칭해요.

현재 모든 종류의 마술을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멘탈 마술은 22세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술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방송·유튜브 등 다수의 플랫폼에서 마술의 비밀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멘탈 마술의 경우 심리학과 뇌 과학 등의 기법을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 안에서 트릭을



▲세계마술올림픽 챔피언 최현우 마술사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도구의 힘이 아닌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 보여주는 장르이기에 많은 분이 진짜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지 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4.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클로즈업 마술사로서 활동하며 2002년 국제마술협회 마술 컨벤션 △클로즈업△코미디△쇼맨십 부문에서 우승하셨습니다. 이후 2009년, 세계마술올림픽 FISM 우승을 거머쥐고 2012년엔 최연소 심사위원에 발탁되는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세계 정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슬럼프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사실 많은 마술사 후배들이 슬럼프가 없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단 한 번도 슬럼프를 겪은 적이 없어 답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전 세계인

구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중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3% 안에 들어가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마술이 재미있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Q5. 1996년 데뷔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마술공연 중 여자친구 몰래 남자친구의 신청을 받아 연인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중 2005년도 연말에 만난 연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멋진 무대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승낙하기 마련인데 여자가 울면서 거절하셨어요. 다들 당황해하는 사이 남자친구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말기 암인 여자친구를 간호하던 도중 남편으로 있어 주고자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죠. 그분이 모든 관객이 응원의 박수를 준다면 그녀가 받

아주지 않겠냐며 이야기 하는데 거기 있던 모든 관객과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포즈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사건이 제게 '공연이란 무엇인가'와 '마술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됐습니다.

Q6. 마술사로서, 인간 최현우로서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가요?

좋은 마술사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요. '좋은'이란 단어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보편적인 기준 그 이상이 돼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신념이 마술에 입혀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7. 공연과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앞으로 마술사로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오래 잘 버티는 대중예술가로 남고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대중에게 마술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술사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Q8. 끝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원하는 바를 행복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운을 대하는 자세가 운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후배들이 사회에서 꿈을 멋지게 펼쳐내시길 바랍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알립니다]

지난달 20일,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국제교류처로부터 1042호 기사 내용 중 일부의 정정보도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8일 발행된 1042호 4면에 게재된 '코로나19에 부딪힌 우리학교 유학생'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이처럼 교환학생에게 신속히 공지를 전달했던 점에서 우리학교의 대응방식과 차이가 있다'를 '중국권 국가에 대해 우리학교도 다른 학교와 상응한 수준의 조치를 취했으나 동아시아권 국가 이외의 경우 어려움을 겪은 일부 학생도 있었다'로 수정합니다.